

[사회]



“코드인사 안된다” 전남대병원 노조원들이 14일 오전 병원 임시이사회가 예정된 회의실 앞에서 상임감사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를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추가 등록률

전남대·조선대 90% 넘어

전국적으로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미등록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나 이 지역 대학의 등록률은 90%를 넘어서 신입생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14일 1차 추가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 총 120명에 117명인 97.5%가 등록해 다른 지역 로스쿨 보다 10% 가량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 미등록 3명은 15일 2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뒤 오는 19~20일 이틀 동안 등록률을 예정이다.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도 63명 모

집에 91%인 57명이 등록했으며, 오는 19~20일 1차 추가등록시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25명 모집에 96%인 120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 5명도 15~16일 추가등록시 무난히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와 조선대 관계자는 “전문대학원의 등록률이 모두 기대치 이상”이라며 “미등록자 수가 소수인 만큼 앞으로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정도 추가 등록을 받으면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a table of regional temperatures, and a 7-day forecast for Gwangju.

전남대병원 감사 후보에 친 정부 인사 내정설 논란

병원노조 반발 파문 확산

전남대병원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뒤 퇴임한 상임감사 후임에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 K씨를 포함한 3명을 후임 감사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공식인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한 14명 가운데 3명을 상임감사 후보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된 인사 중 공모 전부터 내정설이 돌던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 K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노조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병원은 지난 해 11월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서대석 전 상임감사를 해임했다. 서 전 감사의 해임으로 예정된 친 정부 인사의 후임 상임감사 내정설을 뒷받침하듯 임명절차가 진행되자 구 상임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상임감사 추천시 1위부터 순위를 매겨 2~3배수를 추천하던 방식을 바꾼 이번에는 3

명의 후보를 가나다순(이름)으로 추천했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이날 이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정당 관계자 K씨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면서 “전남대병원 감사는 병원을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의 경영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가 발탁돼야 한다. 정부의 코드 인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인사가 감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모 정당 지구당 위원장 K씨는 “전남대 병원의 경영과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했을 뿐이며, 낙하산 인사는 들은 바 없고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상임감사 추천은 원래 후보 순위를 정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민감하고, 지역 정서를 감안해 순위 없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상임감사는 교과부 장관이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 3년에 연봉 8천700여만원을 받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명문대 합격 현수막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명문대학교 입학에 축하하는 현수막이 대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입시철 고교 교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학 합격 게시물에 대해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14일 “특정 대학교 합격 축하 게시물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 입학이라는 결과물만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입시 학원과 얽혀 다른 공교육 현장에서마저 취업, 유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이 무시하고, 특정 대학교 합격 인원을 잣대로 교사들까지 줄 세우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지난달 광주내 63개 고교를 조사한 결과 20개교에서 ‘서울대학교 최근 10년간 108명 합격’ 등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 등에 걸었고, 27개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사실을 알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울대 입시 출제위 합숙소 뚫렸다

경비업체 직원 침입

외부와 철저히 격리돼야 할 서울대 입시 출제위 합숙소에 외부인이 ‘침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대는 문제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자칫 전국 대학 입시 일정의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입시 관리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서울대와 호텔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하순 서울 모 특급호텔에 마련된 2009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위원 합숙소에

호텔 경비용역업체 직원이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당시는 시험 예정일이 1주일도 남지 않은 때로 모든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출제위원 수첩명도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전남대출제 작업이 벌이고 있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는 신고를 한 출제위원으로부터 받고 호텔 관계자 입회 하에 침입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침입자는 이 호텔에 근무하는 외부 경비용역업체 직원으로 드러났다. /연필뉴스

무등산 입장료 규정 없앤다

광주시, 유명무실 조례 개정키로

무등산 도립공원의 입장료 징수를 명문화한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최장만 무등산공원위원장 주재로 시청에서 위원회를 갖고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조례 가운데 입장료 규정을 담은 세부 규칙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위원 전원 14명이 입장료 규정을 폐지하자는 뜻을 같이했다. 지난 1995년 11월 제정된 ‘무등산 도립공원 관리조례’는 세부 규칙으로 어른 200원, 청소년 150원, 어린이 70

원의 입장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를 심의한 광주시의회는 부칙에 ‘별도의 시기에 시행한다’고 명시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3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 당시 반대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물론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공원입장료 징수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만큼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조업 선원 복어 먹고 중독 잇따라

최근 전남지역 해상에서 복어 요리 를 먹고 독에 중독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밤 10시께 완도군 청산도 남쪽 5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118급 안강망 어선에서 복어 요리를 먹던 박모(55) 씨가 마비 증세를 일으켰다. 이 배에는 박씨를 포함해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박씨는 이날 혼자서 복어를 익히지 않고 회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해경 경비정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를 받은 뒤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완도에서는 지난달 10일에도 청산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주모(48)씨가 복어를 요리해 먹고 잠을 자다가 마비 증세를 일으켰으며, 지난해 1월에는 여수 해상에서 복어 요리를 먹은 선원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박씨 중독은 일부 선원들이 우연히 그물에 걸려든 것을 요리해 먹었다가 탈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경측은 설명했다. /원도=정은조기자 ejchung@

중국 난창 주 2회 운항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국 강서성(江西省)의 성도인 난창(南昌)에 주 2회 부정기 전세편을 운항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설 연휴와 춘곤증(春飢) 수요

를 대비해 인천~홍콩구간에 총 20회의 특별기와 인천~청두(成都) 구간 에 총 1회 특별기를 운항한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난창에는 세계 3대 온천수로 불리는 여산 온천 등 관광지가 많고 날씨가 온화해 골프라운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중국 노선 판매에 활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MBC Cultural Center featuring a martial arts performance and promotional text for a '무안 공 항 직항!!!' (Mu-an Gong Hang Jikhang!!!) event.